

현대차 주가 하락 어디까지... 외인 매도에 목표가 ‘줄하향’

6월 75만원 고점 대비 58% 떨어져
파업 여파에 도매판매 감소 예상
환율·원가 부담에 4분기도 불투명

현대자동차 주가가 최근 큰 폭의 조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로보틱스·인공지능(AI) 등 신사업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본업인 자동차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실적 둔화 우려가 커진 데다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며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주가가 약 60% 가까이 하락한 상황이다.

◆현대차 30만원대 무너지나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1.56% 내린 3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29만원대까지 밀리며 30만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주가가 장중 30만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6월 1일 고점이었던 75만원 대비 58% 하락했다. 하반기에만 36.36%가량 하락했다.

올해 1월에 35%를 상회하던 현대차 외국인 자본율도 지난 8월부터 24%대에 형성됐으며, 현재는 23.90%에 머물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외국인 이탈



현대차 주가가 연중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원가·환율 부담으로 증권가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세로 평가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현대차를 11조3925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 업종 전반도 부진하다. 하반기 KRX 자동차지수는 20.50%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기아는 21.52%, 현대모비스는 30.30% 각각 하락했다.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3개월 동안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는 많았지만, 상향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이달 들어서도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 13곳 모두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낮췄다.

지난 12일에도 KB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신한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6곳이 목표주가를 내렸다. KB증권은 기존 9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했으며, 유안타증권은 57만원에서 41만원까지 내려잡았다. 키움증권은 7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은 78만원에서 63만원, 현대차증권은 63만원에서 50만원, 유진투자증권은 7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했다.

◆본업 둔화·노조 리스크 겹쳐

최근의 주가 부진은 자동차 사업 성장

세 둔화 우려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투자증권은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2조37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였던 2조790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글로벌 도매판매 감소와 더불어 원가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재료비가 사업계획 대비 약 6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유사한 부담이 예상된다”며 “실적 개선이 지연되고 로봇 사업의 가치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주가박스권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는 지난 7~8월 노조 파업으로 약 5만5000대의 생산 차질을 겪은 것으로 추산된다. 생산 공백은 판매량 감소로 이어졌고, 현대차의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한 약 92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원철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 권역에서 부진했던 3분기 판매실적은 주로 7~8월에 걸쳐 진행된 국내 아산, 울산공장의 파업에 기인하며 아산공장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 공사에 따른 생산중단까지 겹치며 부진이 심화됐다”며 “특히 10년만의 전면 파업이 진행된 8월에는 국내공장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3분기 기준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1%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상반기에 인식했던 외화판매보증충당부채 재평가비용의 환입에 따른 판관비 감소가 매출 부진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라며 “4000억원대의 판매 보증비 환입 효과가 기대되며 해당 환입효과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현대차 3분기 손익 추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영업이익을 2조5550억원으로 예상하면서 관세와 판매보증비 감소가 감익 요인을 거의 상쇄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반면 원화 강세에 따른 수익성 부담도 존재한다. 김창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환율 가정 변화로만 약 3000억원의 영업이익 축소 영향이 발생했으며, 파업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 효과도 작용했다”면서 “현재 환율인 1350원대가 유지될 경우, 3분기 평균 환율 1418원 대비 또다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면서 4분기 실적 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생산 차질이 해소되더라도 환율과 원가 부담이 지속되면 실적 개선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내년 회계기준 변경... 영업익·공시체계 손질 단기 옵션에 몰린 美 개미, 하루 거래 935조

금감원, 실제 데이터 검증 당부

수익·비용 5개 범주 분류

자체 성과지표 공시 확대

금감원은 1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고 밝혔다.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실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핵심은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5개 범주로 나누는 것이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 등을 표시해야 한다.

영업손익의 개념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뜻했지만, 새 기준에서는 투자·재무 등 다른 범

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의 손익으로 바뀐다. 기업은 새 분류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 원인과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

경영진이 대외 소통에 사용하는 자체 성과지표의 공시도 강화된다. 해당 지표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해당하면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자체 성과지표와 회계기준에 따른 실적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영업비용은 정보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격별·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의 통합·세분화 원칙이 강화되고 현금흐름표 표시도 변경된다.

기업의 준비 부담은 당해연도 재무제표

에 그치지 않는다. 새 기준이 소급 적용돼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실제 수치를 산출·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현행 표시·공시 방식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 이슈를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문서화하고 계정과목, 매핑체계, 공시양식과 관련 내부통제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작성도 주문했다. 재무제표 작성·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회계정책과 데이터, 시스템, 결산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료수집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 전체 준비상태를 점검하라는 취지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자산운용

메타·팔란티어 담은
‘AI 에이전트’ ETF

삼성자산운용은 AI가 스스로 일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주목해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미국AI에이전트액티브’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KODEX 미국AI에이전트액티브는 AI 에이전트 산업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미국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ETF다. 최근 출시한 ‘뮤즈’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메타, AI 에이전트 업무 환경을 구축하는 팔란티어, AI 보안 분야의 강자 팔로알토네트웍스 등 상위 3개 종목을 약 47%를 편입하도록 구성했다. /신하은 기자

거래 절반 이상 만기 2주 미만

미국 증시에서 짧은 기간의 주가 움직임에 베팅하는 옵션 거래가 달아오르고 있다. 개별 주식 옵션의 하루 명목 거래규모는 밌 주식 열풍이 불었던 2021년과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다. 금리 인상과 고유가, 중동 전쟁 등 불안 요인에도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AI) 성장 기대를 앞세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옵션 전문 투자운용사 카릭 레인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개별 주식 옵션의 명목 거래규모가 하루 약 7000억달러, 약 935조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며 일부 종목이 급등했던 2021년 수준이다.

명목 거래규모는 옵션을 사고파는 데 실제 지불한 돈이 아니라, 거래한 옵션이 대상으로 삼는 주식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하루 935조원의 투자금이 옵션 시장에 들어왔다는 뜻은 아니다.

옵션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다. 주식을 살 권리는 ‘콜 옵션’, 팔 권리는 ‘풋 옵션’이라고 한다.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주가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옵션 매수에 쓴 돈을 전부 잃을 수도 있다.

최근에는 주가 상승에 베팅할 때 활용하는 콜옵션의 가격도 2021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옵션 가격은 주가의 방향뿐 아니라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일지,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눈에 띄는 것은 짧은 만기의 계약에 거래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카릭 레인의 존 미шал 파트너는 개별 주식 옵션 거래량



미국 증권거래소 전경.

/뉴시스·AP

의 절반 이상이 만기까지 2주도 남지 않은 계약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WSJ은 이를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간의 가격 변동에 적극적으로 베팅하는 흐름으로 해석했다.

단기 옵션은 주가의 방향과 함께 움직이는 시점도 맞아야 한다. 콜옵션을 샀더라도 주가가 만기 전에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 이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더라도 이미 권리가 만료됐다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주가가 유리하게 움직일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옵션 가치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도 강해졌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에서 향후 6개월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 비율은 10월 둘째 주 40.3%로 집계됐다. 7월 중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WSJ은 개인들이 금리 인상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 중동 전쟁 등의 악재보다 기업의 견조한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불안에도 주식을 사들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로 전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할 때도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후 AI 관련 종목과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매수세를 이어갔다.

/허정윤 기자

3분기 채권·CD 발행 178조3000억

예탁원, 직전 분기보다 총액 1.9% ↓

올해 3분기 채권·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등록발행 규모가 17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증가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3일 올해 3분기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한 기업 등의 채권·CD 등록발행 규모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 160조5000억원보다 늘었지만, 직전 분기인 올해 2분기 181조7000억원보다는 1.9% 줄었다.

채권 등록발행 규모는 16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2.8% 감소했다. CD는 1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16.8% 줄었으나 직전 분기보다는 13.3% 늘었다.

종류별로는 금융회사채와 특수목적법인(SPC)채를 포함한 회사채가 81조5000억원, 특수채가 76조9000억원이었다. 이어 국민주택채 3조7000억원, 지방공사채 3조1000억원, 지방채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수채가 43.1%로 가장 컸다. 금융회사채는 36.1%로 두 종류의 합산 비중이 79.2%에 달했다. CD는 6.7%, 일반회사채는 6.6%, SPC채는 3.0%였다. 국민주택채와 지방공사채, 지방채의 비중은 각각 2.1%, 1.7%, 0.7%로 나타났다. /허정윤 기자